

넷플릭스 “올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 투자 계속할 것”

기사입력 2020-01-23 18:37

넷플릭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콘텐츠 관련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테드 사란도스 넷플릭스 최고콘텐츠책임자(COO)는 1월22일 진행된 넷플릭스 2019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한국 콘텐츠는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곧 새 시즌이 공개되는 글로벌 히트작 <킹덤>을 비롯해 한국 창작자들의 수준 높은 콘텐츠들이 엄청난 영향(super impactful)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 “전세계적으로 1억4천만 달러의 수익을 낸 영화 <기생충>의 사례를 보면 훌륭한 이야기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NETFLIX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투자자 서신(Letter to Shareholders)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넷플릭스의 기대감은 강하게 드러난다.

해당 서신에서 넷플릭스는 2019년 한 해 동안 한국을 포함한 지역별 오리지널 콘텐츠가 큰 사랑을 받았다고 분석하며, K-콘텐츠로 대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작품을 위해 많은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체결한 JTBC 및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 콘텐츠 파트너십을

통해 전세계의 K-드라마 팬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매출 '방긋'...미국 외 지역 유료 구독, 사상 처음 1억 돌파

넷플릭스의 2019년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6% 증가한 55억 달러, 유료 구독 계정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21% 증가한 1억6700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외 지역의 유료 구독 계정은 사상 처음으로 1억을 돌파했다. APAC(아시아 태평양),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 LATAM(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유료 구독 계정 증가치는 역대 4분기 중 최대다.

지역별 유료 구독 계정 수는 아시아 태평양이 1623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175만 가구가 증가했다. 북미는 전 분기 대비 55만 가구가 증가한 6766만명으로 나타났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는 5178만으로 전 분기 대비 442만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라틴 아메리카는 3142만명으로 전 분기 대비 204만 가구가 증가했다.

넷플릭스는 북미 지역 유료 구독 계정의 증가 폭은 다른 지역 대비 적었으나 미국에서의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가 타 지역보다 약 10년 이른 2007년에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꾸준한 성장세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매출도 전망치를 상회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2019년 9월 이후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이날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는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넷플릭스의 대응 전략을 묻는 투자자의 질문에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떠한 콘텐츠와 프로덕트가 모두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전략을 수립해왔다”라며 “향후 10년 역시 같은 전략을 취할 것이다. 남은 숙제가 있다면 이를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경 기자(shippo@bloter.net)

[블로터 바로가기]

- ▶ 네이버 메인에서 블로터 뉴스 구독하기
- ▶ 블로터 아카데미에서 마케팅 역량을 키우세요
- ▶ 아직도 감으로 마케팅하시나요? 신개념 분석 솔루션

저작권자 ©(주)블로터엔미디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